

## ‘제307풍성호’ 어선사고 인명구조 및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

- 강도형 해수부 장관, 어선 사고 발생 보고 받고 인명구조 및 수색 신속 지시 -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3일 04시 11분경 전남 신안 가거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장어통발어선 ‘제307풍성호(33톤)’ 어선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.

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“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, 해양경찰 등과 협조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.” 라고 지시하였다.

현재, 승선원 9명 중 7명을 구조하고, 해양경찰 함정 및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.

△ (사고개요) '24. 6.13.(목) 04시 11분경 전남 신안 가거도 북서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근해장어통발어선 ‘제307풍성호’ 전복된 상태로 발견

\* 총톤수 33톤, 경남 통영 선적, 9명 승선

△ (04시 30분) 「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」에 따라 위기경보 “경계” 발령

△ (05시 00분 현재 피해현황) 9명 중 7명 구조, 2명 실종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	책임자	과 장	윤상훈 (044-200-5550)
	어선안전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손외학 (044-200-5526)